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성 정희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제1독서 : 지혜 3, 1-9

제2독서 : 로마 8, 31L-39

복음 : 루가 9, 23-26

이 주일의 화답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숲 정이



## 뛰 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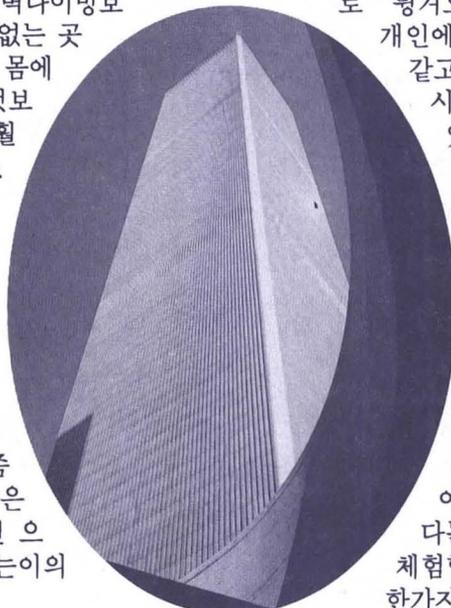
김진룡 신부/복자 성당

“셋, 둘, 하나, 뛰어!”

100m 달리기 출발이 아닙니다. 수십미터 높이에서 외줄하키를 몸에 걸치고 뛰어내리는 이른바 번지점프의 출발의식입니다. 최근에 젊은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번지점프는 안전장치를 단단히 갖추어놓은 점프대만이 아니라 높은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감행(?)될 수 있는 모험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뛰어내린다는 점에서 절벽다이빙과도 비슷하지만 번지점프는 절벽다이빙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서 또 물이 없는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몸에 걸친 생명선이 물에 뛰어드는 것보다도 뛰어내리는 이의 안전을 훨씬 더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점프대에 서는 사람의 대부분은 점프대 아래에서 자신만만하게 뛰지 못하는 사람을 비웃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뛰어내리지 못하겠다고 손을 흔들거나, 포기의 의사로 비취지는 울음등은 차라리 솔직한 편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네”, “우선 심호흡 좀 하고”, “나 오늘은 일진이 안좋은데” 등 조금전의 그 자신만만하던 으쓱임은 간데가 없어집니다. 보는이의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까닭은 점프대 앞에선 사람 대부분이 체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본능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면에서 점프대의 높이를 가늠했던 것과는 달리,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땅위의 세상은 온통 나를 해칠 것같은 위협스런 도구들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던 수면을 보며 시 한수라도 읊고 싶었는데, 평소에는 우거진 나무와 넓직한 바위의



조화로움에 별장이라도 한 채 어떨까 생각했지만, 점프대위에서는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뛰는이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의 상황은 2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낄낄거리던 이가 위에서는 진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하게 다칠 수도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이 일에 사람들은 점점 더 매력을 느끼는가 봅니다. 그 매력이란 어떤이는 ‘추락’에 있다하고 어떤이는 저점을 끝으로 ‘뿔겨오르는 순간’에 있다고들 합니다.

개인에게 그 매력이 어떠한 죽음과도 같고 새로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동시에 그것도 짧은 순간에 맞볼 수 있는 것이 번지점프의 매력입니다. 그러기에 숙달된 조교가 “왜 두려어나”는 물음을 할 때, “병중에 계신 아버지에게 힘을 드리 기 위해서 입니다”는 대답을 이해하게 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음과 몸으로 이해할 답입니다. 그러기에 뛰어내리는 자만이 이런 물음에 답할 자가 됩니다. 뛰는 자만이 ‘추락’의 깊이와 시간을 느낄 수 있고, 뛰어내리는 자만이 ‘튀어올라’ 살았다는 순간이 가져다주는 영원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위해서 뛰는 이는 알던 모르던 생명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포와 의심속에서도 생명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가 뛰어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 그것은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 이 일에 반듯이 필요한 일입니다.

“함께 뛰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 명

# 내 십자가

정인섭

늦더위가 천둥 번개까지 울면서 치면서 잦은 비를 몰고 다니며 식을 줄을 몰라 여름이 유난히 긴 느낌이다. 선풍기에 땀을 식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고생이 심하다. 요새 학생들은 여간해서는 더위를 견디려고 하지 않는다. 부채를 갖고 다니는 일도 없고 부채질을 하려고도 않는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더 찾는 눈치다. 참을성이 없다는 뜻이겠다.

어느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묻는데 이랬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기로는 올해 여름에 지구에 재앙이 내린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갈까요?"

고등학생들 학습지 이름 가운데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것도 있다. 그 학생은 세계의 현실이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었고, 그런 점에서 조금은 종교적인 심성을 지녔다고 하겠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야 하느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로 넘겼지만 그리 후련해하지는 않는 얼굴이었다. 누구나 이 각박하고 거센 세파를 살아가느라 조금씩 지쳤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세상이 별받을 쪽 별받고 상받을 사람 상받으며 질서가 잡히도록 어떤 큰 변혁이 있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때는 사람이 초 분 시 일 월 년을 정한 것이지 하느님께는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피조물이면서 피조물 가운데 범벽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은 하루도 제대로 살아내기가 벅차고 빠듯한 것인데...

올 여름이 더위가 유난하게 느껴진 것은 아무래도 1999년이라는 세기말의 짝 찬 느낌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거기다 대희년을 앞두고 나름대로 인간이 치뤄야 할 십자가며 고난의 짐이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제각기 십자가 짐을 지고 살아가자면 고되고 시름겨운 대목이 많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나의 마음 속 가시가 나이들도록 빠지지 않아서 자신을 새롭게 추스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 안에 상처와 고통으로 자리잡은 한 같은 것이 시시로 때때로 도져서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도 있다. 밋든 곱든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웃의 고역도 작은 짐은 아니다. 거기에 내 나라 겨레가 주는 사슬같은 고통은 나 하나의 힘으로는 참으로 크고 벅차다.

그러나 바로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몫을 받아안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 어찌겠는가.

우리 어머니는 6년을 누워지내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석달쯤 누우셨었다. 어머니는 가끔씩 "아이고" 나 "꿈"소리를 내는 정도였는데, 아버지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리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시곤 했다. 고생을 놓고 보면 평생 어머니쪽이 심했는데 정작 6년이란 긴 세월을 다른 원망없이 견뎌내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심성이나 참을성은 다 다르고 또 세월따라 어떻게 고통을 다스리며 살아가느냐에 그 길이 다른 것을 알겠다.

갑자기 닥쳐오는 고통, 병,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얼굴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 신앙때문에 잡혀가거나 죽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포졸'에게 당당히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싶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8)

##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659-667항)

김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우리는 가끔 산의 웅장한 모습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른다. 그러나 우리가 산을 오르는 여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다. 산 전체의 웅장한 모습은 정상에 오른 다음에야 만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전체를 아직 만끽할 수 없고, 나무들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등산의 여정은 힘이 무척 들고, 때로는 지겹기도 하다.

하느님과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신앙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 가끔은 어렵고 혹은 지겹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목적이 그분과의 온전한 친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온전한 친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친교를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정상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 여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경의 제6절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예수의 승천은 대화의 완성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친교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하늘에 올라” : 여기에서 ‘하늘’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높고 넓기만 한 하늘의 그 어느 한곳으로 오르셨다는 뜻이 아니다.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므로, 예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올라 가셨다는 뜻이다(요한 20,17; 교리서 660항 참조). 그리고 예수의 신성 혹은 영혼만이 아니라 인성까지를 포함한 그분의 모든 존재가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다(659항 참조).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당신 존재 전체로, 곧 지상에서 영위하신 삶을 하나도 잃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다.

어떻게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한 존재로 하늘에 오르실 수 있었는가? 결론적으로 대답한다면, 하느님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온전하게 행동으로 옮기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obaudire).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남김없이 순종하셨던 마리아도 육신과 영혼으로, 곧 지상 삶을 하나도 잃지 않은 채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성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전한다(사도 1, 3 참조). 성서에서 40일은 항상 거룩한 준비기간을 뜻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40일동안 교회를 준비하신다. 이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모든 업적이 승천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통해 지속되도록 준비하시기 때문에, 부활 후 40일 기간은 예수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 승천은 예수 시간의 끝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는 새로운 시작이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 ‘오른편’은 하느님 다음가는 최상의 영예스러운 자리이다. 때문에 예수께서 성부 오른 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과 영예를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셈이다(663항 참조).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곧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목시 19, 16; 교리서 664항 참조)가 되셨다는 것도 뜻한다.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은 폭력과 억압의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다스림, 곧 사랑이다. 따라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그분의 사랑에 대해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신경의 제6절은 지상여정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어 앞서가시었고, 그 문을 열어주신 하늘은 오직 현실에 충실함으로써 이를 수 있다. 예수와 성모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영광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 집



# 선조를 기억하는 차례(茶禮)예식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추수가 끝나면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마련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조상들께 차례를 올렸습니다. 추석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느님과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통의 정신을 살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차례예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이 평소에 즐겨하던 음식을 차려놓고 적당한 자리에 조상의 영정과 십자가를 모시고 촛불을 밝힌다.

① 성호경

② 성가 : 가톨릭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른다.

(예 - 2장, 34장, 44장, 50장, 59장, 423장, 434장 등)

③ 독서 : 감사와 축복에 관계된 성서 구절을 선택하여 봉독한다.

(예 - 신명기 30, 15-20 역대기상 29, 10-18, 이사 12, 1-6, 시편 48, 1-14, 요한 17,1-5; 20-26, 마태 5, 1-12, 에페 1, 3-14)

독서 후 독서자가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하면 가족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답한다.

독서후 잠깐동안 묵상을 한 다음 가장의 말씀을 듣는다.

④ 가장(家長)의 말씀

가장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환영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며 대화를 나눈다.

㉠ 먼저가신 선조 들의 가르침과 가훈과 가풍을 전해준다.

㉡ 그 동안의 가족들 소식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⑤ 가장의 말씀이 끝나면 서열순으로 영정에 큰절을 올린다.(남녀 가리지 말고)

⑥ 위령기도 : 가톨릭 기도서 74쪽의 위령기도를 드린다. 이외에도 기도서를 참조하여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등을 바친다.

⑦ 신자들의 기도 :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감사나 은혜를 청하는 기도를 바친다.

⑧ 성가 : 가톨릭 성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35장, 77장, 445장, 481장 등)

⑨ 주님의 기도 : 모두 다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⑩ 식사 : 모두들 편하게 앉아 준비한 차례 음식을 나눈다.

순교극 '님이시여 사랑이시여' 공연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부님, 전 교구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톨릭 예술단원 일동 드림

**자동차보험전문회사**  
**LG화재** 총괄법인대리점  
 (주)에이플러스 원 전북사업본부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욱(리드비나)  
 서신동 천주교 신협 3층  
 ☎ (0652) 251-3930-2

포도즙, 양파즙, 홍어즙 신지식층  
 효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다려드립니다  
**롯데건강원**  
 최 창 림(토마스)  
 박 정 희(모니카)  
 효자동 롯데A 상가 丙 1층  
 ☎ (0652) 225-4319

**전주대항외과**  
**(구. 학문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변비)  
 전문의 소 우 성(스테파노)  
 효자동 서도프라자 입구  
 ☎ (0652) 227-0377

**LG 냉난방**  
 에어컨, 식당용 냉장고  
 천정형 에어컨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 “희년과 정의(正義)”

“참으로, 그토록 수많은 갈등과 참을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투신은 희년의 준비와 경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제삼천년기」, 51항). 교황성하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1971년 「세계 정의」에 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의 사회 정의에 관한 오랜 전통을 기억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아울러 “평화를 원하면 정의를 위해 일하십시오.”라는 교황 바오로 6세의 권고를 기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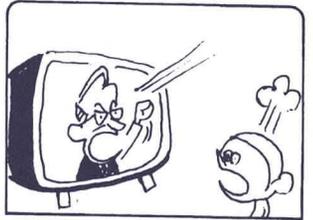
성서에 따르면, 정의는 무엇보다도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었다. 그리고 왕(과 지도층들과 통치자들)은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했다(「제삼천년기」, 13항). 희년은 부자와 “가진 자”들에게 노예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등하게 되고,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희년은 이러한 정의의 사업들, 곧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하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포되었던 것이다.

정의는 또한 국가들의 일이다. 1989년 이후의 세계에 관해 성찰하면서, 교황 성하께서는 국가들이 진지하게 양심성찰을 하여, 구조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자행한, 제국주의적 정책의 결과로 생긴 경제적 정치적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꾸어서 정의란, 현대어로 말하면 자본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땅이나 돈과 같은 자본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직업, 고용 기회, 다른 많은 종류의 혜택과 같은 자본을 일컫는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의 의미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그것을 돌려주어야 하며(책임, 선택, 결정), 마찬가지로 어른이 된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육신과 재화를 땅과 모든 선한 것을 주신 분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이다.

요십이 (1363) 김병오



**성 소 모 임**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일시: 9월 26일 오후 2시~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랑진본원  
문의: (0527)352-4241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서 더욱 성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갈망하시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환영합니다.

**성 소 모 임**  
**한국외방선교회**  
일시: 9월 26일 오후 2시  
장소: 광주 가톨릭 센터 616호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문의: (02) 3673-2525  
장소: 외방선교사제를 지망하는  
교교생, 대학생, 일반(미혼)

기쁘고 온충의 대희제 2000년 대희년까지 97일 남았습니다.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환  
경  
신  
계  
면

1. 하느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내몸같이 사랑하자.
2. 말 못하는 동식물을 괴롭히지 말자.
3. 검소함을 자랑삼고 사치를 부끄러워 하자.
4. 간소한 식단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
5. 물과 세계 사용량을 줄이자.
6.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생활화하자.
7. 가능하면 1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
8.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난방온도를 낮추자.
9.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애용하여 교통량을 줄이자.
10. 매연자동차나 불법매립 및 수질오염을 고발하자.

### 세 광 당

금, 은, 보석, 시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담환영)  
김 윤 중(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코야백화점내 1층  
☎ (0652) 288-0058/285-3061

지역특화시범 환경농특산물(무농약)  
인진재배 생산 추출액

### 마이산인진숙Project

박 준 호(임브로시오)  
안 순 정(라사라)  
주문처 전화 ☎ (0655) 432-2680, 4000  
전주시업소 ☎ (0652) 254-2404  
기술협력: 전북 농업기술원 진안숙근  
약초시험장 원광대학교 의약자연 연구센터

### 혼수이불, 한복전문점 삼정훈수프라자

직영섬공장에서 헌수를  
세움같이 개조해 드립니다.  
소 병 을(루가)  
최 영 자(루시아)  
송천동 서호 1차 아파트 입구  
☎ (0652) 274-3983/3943

###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험  
결과 작용후 3일 이내 80%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닻터」  
김 증 진(스테파노)  
다가동 복지성당 옆  
창의메디칼 ☎ (0652)282-1610-1

사 록 단 상

천국의 길목 『몽마르뜨』에서



치명자산 산지기 김봉희(요한)신부

“중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 한 지고 형제들이 오손 도손 한 데 모여사는 것!”(사편 133, 1)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닌 현세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 하느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 기쁨 나누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이면 그 바로 천국 아니랴? 여기, 천국 한 모퉁이 같은 성산의 작은 행복을 사르르 펼쳐본다.

이 복된 곳에 몸담게 된 것은 내게 무슨 신심이나 열성이 있어서도 아니요 어떤 거창한 꿈을 품었다거나 개발의욕 때문만이 더더욱 아니다. 한껏 하면 못내 입땀만 팔았던 지난날이 죄스러워 땅 파고 산 일구며 고결하신 분들 성역이나 다듬고 가꾸면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현대, 뜻밖에도 복에 겹게 은총의 비를 맞으며 살게 돼 기쁘기 그지없다. 나날이 축복이요 기적, 행여 천국 문턱에 선 듯 은혜롭고 감격스러워 모 든게 고맙고 사랑스럽고 신기하기만 하다.

산지기 2년 반, 그간 뭐가 달라졌고 무슨 좋은 일이 그리 많았던가? 뭇 모르고 덤벼든 첫 해엔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는 강한 채찍이 있었고 오만을 씻어야 하는 갈등과 심고가 먼저 한바작 주어 졌었다. 서둘러서도 날뛰어도 아니 됨을 그 분은 직접 몸에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함께 가라! 그리고 자연에 서서히 정성을 모으라. 꽃과 나무, 땅은 제 성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라...”고.

그런 연후, 이내 작업모 눌러쓰고 허리 동여 굽혔을 때 하느님은 물론 사람들마저 좋이 다 봐주시는 것만 같았다. 심지어 IMF까지도 성산엔 축복이 되었고 그 엄청난 폭우와 태풍 가운데에서 조차 그 님은 이 땅을 알뜰히도 보살피 주셨다. 그야말로 「개미역사」가 이어지게 하면서 또다시 「사순절의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고 동산에 사랑꽃이 한 송이 두 송이 아름으로 피어나게 해

주셨으니 말이다. 정말이지. 은총의 빗속을 걷는 느낌이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다. 소속 신자도 관할 구역도 없는 터에 관리자 하나 변변찮은 상황에서 감히 「에덴」을 꾸미고 대 성지로 가꾸겠다'니 가상한 노릇 아닌가?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토록 너댓 산지기가 버젓이 붙어살 뿐 아니라 성역도 성당도 더 잘 꾸며지고 있으니 어인 일인가? 갑자기 순례객이 급증한 것도 어떤 낮 세우는 독지가 하나 있었던 것도 아닌데 ... 그저 사는 게 기적이요 살아온 게 다 기적이며 은총이었음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이다.

그뿐이라. 이젠 낮모르는 신자들로 소위 자원 봉사단이 몇 구성 돼(요한, 루갈다회, 몽마르뜨, 치명자회)한 주가 멀다 하고 스스로 비지땀 흘리며 청소하고 땅 파고 나무를 가꾼다. 그냥 오르기도 가파른 산에 요즘 같으면 2, 3일 걸려 먹거리를 짊어지고 와 점심과 새참을 마련해주는 여러 자매님들이 있고, 땀 별에 온 종일 풀을 매는 아주머님이 보이는가 하면 이순을 전후한 어른들 10여분이 하루 몇 시간씩 작업봉사를 한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기쁘게 웃음꽃을 피우며 오히려 즐거워하고 수고를 보람으로, 은총을 받아들인다. 흙투성이 땀에 젖은 얼굴들을 마주보며 서로 대견해하는 그 모습들이 미쁘고 사랑스러워 그 순간이 내겐 마냥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우린 모두 이렇게 은총 속에 묻혀 산다. 지상천국은 한가로운 놀부네 집 뜰이 아니라 선밭, 된장찌개 먹고도 웃으며 일하는 흥부네 시골벽적한 텃밭 속에 싹이 트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다. 이 또한 축복 아닌가! 그래 우린 오늘도 자연꽃 피고 그 위에 사랑꽃 피어나는 이 작은 행복의 샘터에서 은총의 물 퍼마시고 나누는 보람으로 매일을 산다. 언젠가는 꼭 함께 할 그 님과 뵈고싶던 그분들 축에 끼어 진정 사랑노래 부를 수 있겠지. 천국실습이 끝나면...

**제일 콩나물 식품**  
 농원에서 직접 무농약 재배하여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함(무공해, 아구렘, 동이콩나물)  
 양 동 혁(시몬베드로)  
 김 분 호(아 네 스)  
 농원 : 전주역 뒤 장재동 마을  
 ☎ (0652) 242-6944  
 (휴) 011-679-6944

**전 일 관 광**  
 기쁘고 복된 대희년을 준비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교우 여러분께 하느  
 님의 축복을 빌며 뜻깊은 대희년을  
 맞아 2000년 1월중에 실시할 로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 (0652) 288-6666

**토탈 패션**  
**I M A+**  
 영계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물  
 김 순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개사뒤 K.F.C 앞  
 ☎ (0652) 231-7853

**서도 삼익 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연세),  
 디지털 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 중고 고가 매입 및 보상 판매  
 · 장기할부 및 단기 무이자 판매  
 · 악기연주 지도상담(음악학원  
 운영경력 20년)  
 양 노 섭(희상 바오로)  
 효자동 현대④앞 서도 프라자 2층  
 ☎ (0652) 225-5252/223-5332



권해드립니다

- ◆ 구역(반)장 교육 3차
  - 때 : 9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조촌동 성당
- ◆ 사회교정사목 및, 교구 빈첸시오회 피정
  - 때 : 9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전동 성당
  - 강사 : 이 아빌라 데레사 (성모영보재속수도회 수련장) 복음가수 신상옥
  - 준비물 : 미사도구, 묵주
  - 회비 : 3,000원(중식제공)
- ◆ 2000년 대희년 교구준비위원회 및 사제평의회
  - 때 : 9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 ◆ 가톨릭 미술가협회 월모임
  - 때 : 9월 26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 중앙 성당

- ◆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9월 30일(목) 오후 11시
  - 장소 : 전동 성당
- ◆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때 : 9월 30일(목)
  - 주제 : 현대의 순교
  - 지도 : 장용주 신부
- ◆ 아중본당 사제관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58-1
  - 아중 대우차 아파트 104동 605호
  - TEL 244-6767(FAX겸용)
- ◆ 소리개재 천주교묘지 추석합동 위령미사
  - 때 : 9월 24일(금)
  - 연도 : 오전 10시 20분
  - 위령미사 : 오전 11시



**밀알 한 알이 썩지 않으면**  
 서석구신부/349쪽/7,000원  
 사제서품 25주년을 맞이한 저자의 주일전례말씀 묵상시집, 본당사목 틈틈이 기도와 묵상에서 길어낸 글에서 오롯이 주님을 향해 걸어온 맑고 깨끗한 사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구입 : 바오로딸 서원

**요십이**  
 김병오/315면/8,000원  
 전주교구주보 숲정이에 만화와 만평을 그리고 있는 저자가 26년간 그린 만화중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만화를 엮어놓은 단행본  
 구입 : 각본당 사무실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F. 브로시에/132쪽/ 4,800원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읽어야 한다. 복음서를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성 바오로 딸 수도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바 오 로 딸 서 원	(0652) 252-3398
전교 가르멜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 274-9262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52) 244-0094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 858-4724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 284-2276
동정성모회(전주,이리)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 성당 수녀원	(0652) 232-5004
샬레시오 여자수도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 533-2578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삼천동 성당 수녀원	(0652) 226-3487
인 보 성 체 수 도 회	매월넷째주일 오후 2시	중 노 송 동 본 원	(0652) 284-3231
꼰벤뚜알프란치스코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 2) 793-2070
샬레시오 수도회(남자)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 6 2 ) 512-0332
사랑의 씨튼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52) 281-0441
천 주 성 삼 수 도 회	매월넷째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34) 674-1251

**평화방송 TV ch 33**  
**『새미사해설』비디오 테이프 출시**  
 『새미사해설』의 전체에 의해 제작된 『새미사해설』  
 · 미사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 미사의 모든 중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 가격 : 20,000원(우송료 포함)  
 - 구입문의 : 평화방송, 평화신문 영업국  
 ☎ (02)2270-2541 FAX 2270-2549

**서도 종합 피아노**  
 중고 피아노, 판매, 고가매입  
 구입에서 조율, 운반까지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할 경 아(요안나)  
 이 종 균(요 한)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 (0652) 277-0421  
 휴대폰 011-681-0422

**SK저영 금강주유소**  
 보일러등유 } 정량 정품 판매  
 실 내 등유 } 배달 \* 면세유 취급  
 저유황경유 } 판매 \* 신용카드 현영  
 송 절 규  
 김 선 지(아네스)  
 쌍방울 북저메장→교래동 오거리 방향 우측 100m  
 ☎ (0653) 841-5140

**백 마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익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 환(마 르 코)  
 인 정 미(프란치스카)  
 ☎ (0652) 253-2452 H·P 019-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임실 동충하초 연구소**  
 향중양 면역증강  
 허약체질 개선, 노화방지, 만성피로  
 암환자, 천식, 결핵, 황달, 당뇨, 고혈압  
 소장 김 형 권(필립보)  
 ☎ 임실 (0673) 644-7334~5  
 전주 (0652) 213-4131~2

**금강치과의원**  
 교통좋은 역전으로 이전개원  
 12년간의 경험과 신장비로 모십니다  
 원장(치의학 박사) 진 국 범  
 부 진 성 구(안드레아)  
 익산역→원대방향 30m인켈 2층  
 역전 주차장 이용바람  
 ☎ (0653) 853-6633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무실 272-5302 주임신부 박찬길  
 보좌신부 252-0383 수녀원 272-5304 보좌신부 김희동  
 FAX 271-1937 유치원 252-0384 사목회장이동우

- ◎ 예비신자 성지순례 : 오늘 전 8시 30분, 경기장 앞 출발  
 (교구내 성지순례) ○ 오늘은 사제양성, 후원회비, 후원회비 납부주일입니다
1. 금주 모임 : 성모회, 성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회, 대전회  
 - 교중미사 후
  2. 추석활동 위령미사 : 24일(금) 전 6시, 10시미사  
 \* 미사예물 2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3. 김 베레나수녀님 휴가 : 22일~25일까지
  4. 유아 세례식 : 25일(토) 어린이 미사 후
  5. 감사헌금 : 임성진(스테파노), 이삼교(마르티노) 각 10만원  
 손덕순(벨라디타) 2만원 \* 감사합니다
  6. 금주 전례 : 해설 - 강주섭, 독서 - 박용철, 김순자  
 봉헌 - 팔복 2만
  7. 차주 전례 : 해설 - 송귀현, 독서 - 이종권, 김연자  
 봉헌 - 팔복 3만
  8. 금주 침소 : 25일(토) 대전회, 창조주의 어머니 Pr.
  9. 차주 침소 : 10월 2일(토) 진복회, 성모 마리아 Pr.
- 지난주 봉헌금 : 1,579,800원 □ 교무금 : 1,738,000원  
 □ 2차 헌금 : 743,290원

-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무실 212-3231 주임신부 김진화  
 F A X 212-3722 수녀원 212-3233 사목회장 최승호
- ◎ 대희년을 새가족과 함께 : 9월중 예비신자 인도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 ◎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축하식 - 공식미사  
 \*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1. 추석활동 위령미사 : 당일 전 6시 30분, 전 10시  
 \*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2. 금주 모임 : 중교 자모회, 빈첸시오 - 공식미사 후
  3. 주간 모임 : 요셉회 - 23일(목) 후 6시 30분
  4. 차주 모임 : ① 애령회, 제대회, 구역(반)장회의 - 공식미사 후  
 ② 청년회 - 저녁미사 후
  5. 축! 혼인 : 오늘 낮 12시, 신랑 - 박현희(요셉), 신부 - 김미현
  6. 사제관 수녀원 신축헌금 : 최미자 - 5만, 누계 - 7,998
  7. 침소 안내 : 금주 - 치명자의 모후 Pr., 차주 - 황금궁전 Pr.
  8. 금주 전례 : 해설 - 최정진, 독서 - 유춘원, 박인화  
 봉헌 - 정 작, 강우창
  9. 차주 전례 : 해설 - 최병식, 독서 - 전동운, 정경희  
 봉헌 - 권일용, 이봉순
  10. 줄도리쌀 모으는 날 : 오늘 "사랑을 함께 나누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127,270원 □ 교무금 : 1,248,000원

-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무실 291-2018 주임신부 김순태  
 F A X 291-2018 수녀원 291-3196 사목회장 강영만
1. 금주 모임 : ①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프란치스코회 - 후 2시  
 ③ 사목회 - 후 8시  
 ④ 성체회 - 마지막 금요일 미사 후
  2. 차주 모임 : ① 승리의 여왕, 셋별 꾸리아 - 후 8시  
 ② 애령회 - 공식미사 후 ③ 울뜨레야 - 공식미사 후
  3. 매월 셋째주일은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4. 본당 성지순례 행사 : 10월 10일(주일)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추석활동 위령미사 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6. 감사 헌금 : 예비신자 최동석 - 5만, 임석두(루치오) - 5만  
 박계영(안당) - 5만, 익명(1) - 10만, 익명(2) - 10만
  7. 차주 침소 : 중서신
  8. 금주 전례 : 특전미사 해설 - 이원규, 독서 - 최명식, 한홍순  
 공식미사 해설 - 최용경, 독서 - 이재구, 김순주  
 제물봉헌 - 신체삼 부부
  9. 차주 전례 : 특전미사 해설 - 김옥화, 독서 - 최경호, 김옥분  
 공식미사 해설 - 윤천수, 독서 - 박종선, 장은숙  
 제물봉헌 - 배기승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848,810원 □ 교무금 : 1,113,000원

- 송천동** 주임신부 254-2778 사무실 254-2777 주임신부 박 대 덕 사목회장이진호
1. 금주 모임 : ① 안나회 - 19일(주일) 공식미사 후  
 ② 제대회 - 21일(화) 전 10시  
 ③ 울뜨레야 - 21일(화) 저녁미사 후
  2. 차주 모임 : 요셉회 - 26일(주일) 공식미사 후
  3. 한가위 준비를 위해 23일(목)은 전 6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4. 23일과 24일은 예비신자 교리가 없습니다
  5. 10월 14일부터 교리공부를 시작할 2000년 부활 영세반 예비신자들  
 모입니다. 예비신자 인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전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송천 2동 - 최연숙(보나)  
 현대주택 - 문공숙(실비아)
  7. 추석활동 위령미사가 24일 전 10시에 있습니다
  8. 안젤라 봉사일 : 20일(월)
  9. 강생원 봉사일 : 23일(목)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무실 291-0832 주임신부 오현택  
 수녀원 291-0833 유채원(박민중) 291-1520 사목회장이 이재갑

1. 성전신축헌금 : 김영근 20만, 총계 - 479,802,294원, 주계 - 20만
  2. 오늘은 본당의 날입니다
  3. 차주 모임 : 꾸리아 월례회 - 저녁미사 후
  4. 2000년도 월력과 광고 내실 분 접수 바랍니다
  5. 추석활동 위령미사 예물 : 23일까지 - 사무실 미사시간 - 전 10시
  6. 9월 25일 초등부 후 3시 30분미사 있습니다 : 차량은행 안합니다
  7. 9월 25일 중교 5시미사 없습니다
  8. 감사헌금 : 윤용식(마태오) 5만, 황탁규(마태오) 20만  
 \* 감사합니다
  9. 금주 전례 : 해설 - 이상섭, 저녁 - 이 석  
 독서 - 박필근, 최종길, 송순례, 봉헌 - 강신일 부부
  10. 차주 전례 : 해설 - 강희순, 저녁 - 김미란  
 독서 - 광경열, 정준근, 소미옥, 봉헌 - 최병윤 부부
  11. 성당 침소 : 25일(토) - 루르드 성모, 신자들의 도움 Pr.
- 지난주 봉헌금 : 660,000원 □ 교무금 : 485,000원

-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무실 274-1004 주임신부 한기호  
 보좌신부 254-856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유진영  
 FAX 274-1004 사목회장 장준식
1. 사목회 : 21일(화) 후 8시, 소성당 2층
  2. 추석활동 위령미사 : 24일(금) 전 6시, 10시 30분미사  
 \* 미사예물 2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3. 전주교구 주보 만화책 '요십이'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  
 1원 - 8,000원
  4. 병자 봉성체 : 22일(수) 후 2시 \* 2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연중 봉헌금(교무금)을 월별로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6. 금주 본당침소 : 10구역 25일 전 10시
  7. 금주 전례 : 해설 - 박화신, 독서, 봉헌 - 9구역
  8. 차주 전례 : 해설 - 박화신, 독서, 봉헌 - 10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456,450원 □ 교무금 : 2,570,000원

**숲정이** 주임신부 275-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병환  
 보좌신부 252-1606 수녀원 252-9567 보좌신부 정식인  
 FAX 252-7366 사목회장 김인선

- ◎ "죽" 제 23주년 본당의 날 : 미사 - 10시 30분, 윤호관  
 행사 - 미사 후~후 5시까지
1. 추석활동 위령미사 : 미사시간 - 전 6시, 전 10시 30분  
 \* 앞서간 성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차주 모임 : M.E모임, 요한회 - 공식미사 후
  3. 부녀회, 제대회, 자모회 : 21일(화) 전 10시
  4. 전임을 환영합니다 : 김인국(방지거) 전북 2동 834-54(3구역 14번)
  5. 감사 헌금 : 김광룡(대전 안드레아) 10만원
  6. 2000년 본당 달력 광고 접수합니다 : 사무실
  7. 수녀원건물 구입 헌금 : 익명(50만), 김현숙(30만), 박용근(10만),  
 이영순(5만), 이정현(3만)  
 계 - 44,396,500원
  8. 다음주 본당침소 : 2구역 10만
  9. 미사안내 : 정의의 거울 Pr.
  10. 금주 전례 : 해설 - 황덕구(아오스딩), 독서 - 윤대석, 박미선
  11. 차주 전례 : 해설 - 김문숙(보나), 독서 - 김종윤, 최인자

□ 지난주 봉헌금 : 1,595,750원 □ 교무금 : 1,097,000원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마태 20, 15)

□ 지난주 봉헌금 : 1,235,270원 □ 교무금 : 930,000원